

## 01 | 산불 피해지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복원하나요?

**A**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정도(심·중·경)의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됩니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합니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항구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원방법에 따라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뉘집니다. 자연복원은 자연환경보전림과 같이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산불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됩니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sup>4)</sup>을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복원의 장기적인 과정은 산불의 예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복원(좌)>

<조림복원(우)>

### 강원도 인제군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4) 耐火樹林, 산불에 대비하여 활엽수를 띠형태로 조림하거나, 나무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산불의 빠른 확산을 저지하는 숲